

2019년 3월 12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2%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0%, 애플 +3.46%

기술주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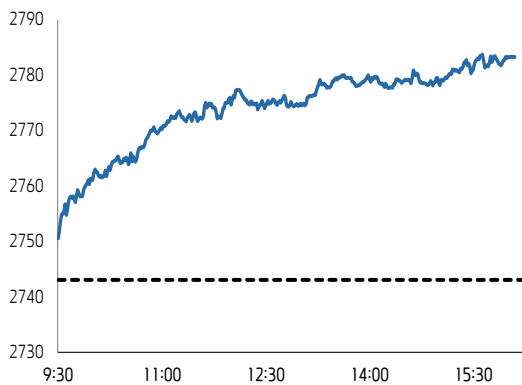
미 증시는 견고한 소매판매(mom +0.2%)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및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 조정 소식과 NVIDIA 의 Mellanox 인수 소식,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도 긍정적 요인(다우 +0.79%, 나스닥 +2.02%, S&P500 +1.47%, 러셀 2000 +1.77%)

미 증시는 주말 파월 연준의장이 단기적으로 금리정책 변화는 없다고 주장. 더불어 연말에 자산축소 조기 종료 시사하는 발언에 힘입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한편,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역협상 기대감을 높인 점도 기술주 강세 요인.

이런 가운데 NVIDIA(+6.97%)가 Mellanox(+7.78%)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칩 제조업체간의 M&A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자심리 개선. 특히 이번 조치로 NVIDIA 는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관련 기업 급등. 한편, 이 소식이 데이터서버 산업의 빠른 성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반도체 업종간 M&A 논의 활성화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도 긍정적. 이를 바탕으로 알파벳, 아마존, MS 등 데이터 서버 관련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으로 작용

애플(+3.46%)과 페이스북(+1.46%)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 조정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 애플은 BOA 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서비스 매출 성장의 가속화, 아이폰의 재고 수준 반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Neutral→Buy, 180 달러→210 달러). 페이스북은 노무라가 규제 증가 등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반영이 되었으며 비용증가 속도가 완화되고 있어 실적 개선 기대가 높라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조정(Neutral→Buy, 172 달러→215 달러). 이 또한 기술주 강세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38.10	+0.03	홍콩恒生	28,503.30	+0.97
KOSDAQ	739.09	+0.42	영국	7,130.62	+0.37
DOW	25,650.88	+0.79	독일	11,543.48	+0.75
NASDAQ	7,558.06	+2.02	프랑스	5,265.96	+0.66
S&P 500	2,783.30	+1.47	스페인	9,171.90	+0.47
상하이종합	3,026.99	+1.92	그리스	696.56	-1.12
일본	21,125.09	+0.47	이탈리아	20,638.22	+0.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NVIDIA(+6.97%)는 Mellanox Technologies(+7.78%)를 6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급등했다. 이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M&A 활성화 기대감을 높였다. 이 결과 인텔(+1.66%), 마이크론(+0.98%), 브로드컴(+1.84%) 등 반도체 칩 제조업체와 AMAT(+2.04%), 램리서치(+1.88%) 등 장비업종, 웨스턴디지털(+4.59%), 시게이트(+5.21%) 등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NVIDIA의 M&A 소식은 데이터서버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알파벳(+2.55%), 아마존(+3.07%), MS(+2.10%)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애플(+3.46%)은 BOA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BOA는 애플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페이스북(+1.46%)은 노무라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다만, 보잉(-5.33%)은 비행기 사고 이후 중국에서 관련 기종의 운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4%	대형 가치주 ETF(IVE)	+1.45%
에너지섹터 ETF(OIH)	+2.86%	중형 가치주 ETF(IWS)	+1.27%
소매업체 ETF(XRT)	+1.83%	소형 가치주 ETF(IWN)	+1.56%
금융섹터 ETF(XLF)	+1.00%	대형 성장주 ETF(VUG)	+1.71%
기술섹터 ETF(XLK)	+2.15%	중형 성장주 ETF(IWP)	+1.5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19%	소형 성장주 ETF(IWO)	+1.94%
인터넷업체 ETF(FDN)	+2.27%	배당주 ETF(DVY)	+0.95%
리츠업체 ETF(XLRE)	+1.5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51%
주택건설업체 ETF(XHB)	+1.0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36%
바이오섹터 ETF(IBB)	+2.14%	미국 국채 ETF(IEF)	-0.08%
헬스케어 ETF(XLV)	+1.14%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0.37%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2.13%	Long/short ETF(BTAL)	-0.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6.99	+1.54%	-2.58%	+2.84%
소재	346.43	+1.41%	+0.41%	+4.88%
산업재	628.06	+0.89%	-1.53%	+2.26%
경기소비재	865.86	+1.53%	-0.88%	+2.65%
필수소비재	562.12	+1.33%	+0.75%	+1.72%
헬스케어	1,044.33	+1.17%	-1.42%	+0.38%
금융	433.99	+0.99%	-1.12%	+1.99%
IT	1,248.58	+2.17%	+0.36%	+4.85%
커뮤니케이션	157.88	+1.86%	+1.70%	+4.05%
유틸리티	292.20	+0.73%	+1.22%	+3.48%
부동산	218.76	+1.54%	+1.58%	+1.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세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9% MSCI 신흥 지수 ETF 도 1.8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473 계약)에 힘입어 1.75pt 상승한 277.0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1.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소비 증가 및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과 커들로 위원장의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여타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인 점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한편, OECD 경기선행지수가 여전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둔화 우려감이 높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일부 유럽국가 및 중국은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며 내수시장이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경기 둔화 우려 확산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 증가

1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1.6%)나 예상치(mom +0.1%)를 상회한 수치다. 특히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가 전월 대비 0.9%나 증가했으며,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등 견고함을 보였다.

12 월 미국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도 4.8% 증가했다. 판매대비 재고 비율은 1.38로 11 월(1.36) 보다 증가해 소비증가가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1 월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달 발표치가 (-0.4%→+0.8%)로 크게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 월 중국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8.0% 증가해 예상치(yoy +8.4%)를 하회했다.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1 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0.5%→0.2%) 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11 감소한 99.1 로 발표되며 여전히 기준선인 100.0 을 하회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0.23), 영국(-0.17), 일본(-0.10) 등 선진국이 이를 주도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급등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4 월 원유 수출 규모가 하루 평균 700 만 배럴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산유량도 하루 평균 1 천만 배럴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이는 기존 감산 합의 물량인 하루 평균 1,031 만 배럴 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달러화는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과 무역협상 기대감이 유입되며 여타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12 일 브렉시트 합의문 표결을 앞두고 달러 대비 1% 넘게 강세를 보였다. 이는 이번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도 브렉시트 시기가 3 월 29 일에서 3 개월 연장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추정된다. 실제 메이총리는 주말에 12 일 표결이 부결되면 다음날 연장안과 관련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런 가운데 유로화는 독일 산업생산 부진으로 달러 대비 소폭 강세에 그쳤으며,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소매판매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더불어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을 높인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66 배)을 하회한 2.56 배에 그친 점도 상승 요인 이었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이 단기적으로 금리정책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둘기적 발언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0% 철근도 1.0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79	+1.28	+0.35	Dollar Index	97.204	-0.10	+0.54
브렌트유	66.58	+1.28	+1.39	EUR/USD	1.1242	+0.06	-0.86
금	1,291.10	-0.63	+0.28	USD/JPY	111.22	+0.04	-0.47
은	15,274	-0.49	+1.12	GBP/USD	1.3144	+0.99	-0.27
알루미늄	1,847.00	-1.34	-1.49	USD/CHF	1.0111	+0.29	+1.21
전기동	6,407.00	+0.19	-0.03	AUD/USD	0.7066	+0.30	-0.37
아연	2,738.00	+1.00	-0.47	USD/CAD	1.3400	-0.12	+0.73
옥수수	362.00	-0.62	-3.40	USD/BRL	3.84	-0.66	+2.23
밀	428.50	-2.50	-5.93	USD/CNH	6.732	+0.02	+0.37
대두	890.00	-0.64	-2.84	USD/KRW	1133.70	-0.22	+0.78
커피	97.20	-1.32	-0.15	USD/KRW NDF1M	1130.79	-0.23	+0.49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39	+1.08	-8.30	스페인	1.150	+10.20	-1.90
한국	1.988	+1.30	-3.70	포르투갈	1.314	-3.00	-14.80
일본	-0.033	0.00	-3.70	그리스	3.932	+17.20	+27.10
독일	0.069	0.00	-8.90	이탈리아	2.558	+5.50	-17.80